

ON AIR

이공의 바깥이
0 7

빛나는 밤에

FM 70.3 Hz

ON AIR

엄DJ



하DJ



FM 70.3 MHz



안녕하세요, '양밤'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엄DJ, 하DJ가 시작합니다. 이곳은 양곤입니다.(나긋하게)



아,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바이브가 부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아, 여러분 노래 나가는 동안에 방송편성표 참고해주세요^.*(짱긋) 그럼 이따 봐요~

ON AIR

10월 편성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뚜뚜 생일파티 ★ 유스 커뮤니티 미팅
2 휴일	3 하우스 키팅 미얀마어 수업	4 마오플라바 널씨리	5 흘랑따야 널씨리	6 쉐삐따 시험 주간 (페이스 페인팅)	7 양곤Y 널씨리 미얀마어 수업	8 ISACC 컨퍼런스 준비
9 ISACC 컨퍼런스 공항 안내	10 ISACC 컨퍼런스 준비(서빙/요리)	11 ISACC 컨퍼런스 (청강/서빙)	12 ISACC 컨퍼런스 (청강/서빙)	13 ISACC 컨퍼런스 (청강/파티)	14 양곤Y 널씨리 쉐다곤 관광(ISACC)	15 아띠 클럽 (빈곤 나눔)
16 데딘조 (휴일)	17 하우스 키팅 미얀마어 수업 빈곤캠페인 시작	18 마오플라바 널씨리	19 흘랑따야 널씨리 킵복싱 수업 시작	20 쉐삐따 방학 (페이스 페인팅)	21 양곤Y 널씨리 미얀마어 수업	22 아띠 클럽 칭마이 YMCA 미팅
23 휴일	24 하우스 키팅 미얀마어 수업	25 마오플라바 널씨리	26 흘랑따야 널씨리	27 쉐삐따 수업 산스데이 티켓팅 빈곤캠페인 발표준비	28 양곤Y 널씨리 Y-STAFF 미팅 빈곤캠페인 발표	29 바이블 컨테스트 산스데이(장보기) 이별파티(Y-STAFF)
30 산스데이 출발(기차)	31 산스데이 도착					



아, 역시 노래 좋네요.
그럼 오늘 하루 저희 프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 볼까요?



네 저희 프로 코너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하 DJ 코너

(1) 빈곤퇴치 캠페인

(2) 아띠클럽

(3) 하우스 키핑,

미안마어 수업

김 DJ 코너

(4) 컨퍼런스 사연 (6) 개인 에세이

(5) 널씨로 사연

ON AIR

ON AIR

빈곤 퇴치 캠페인

ON 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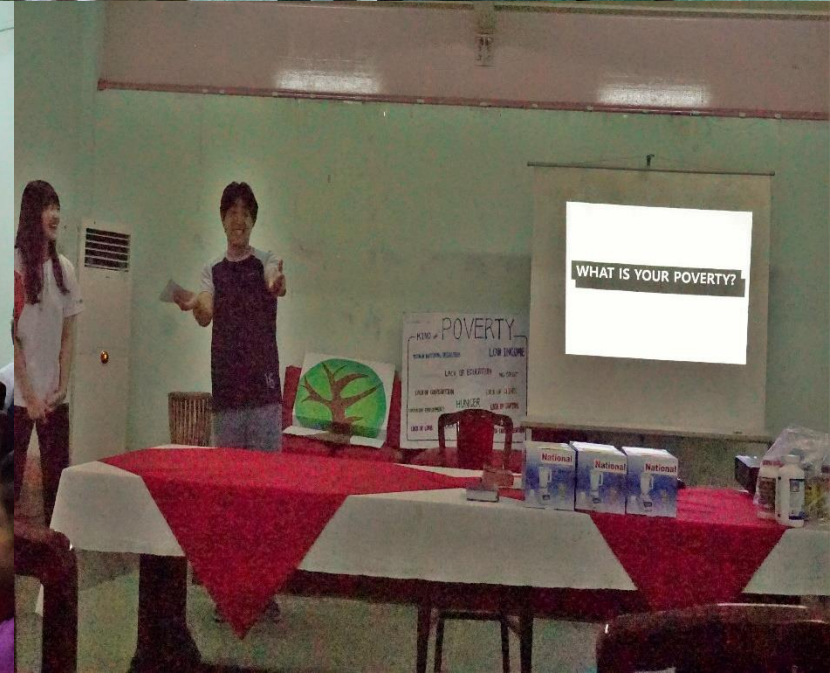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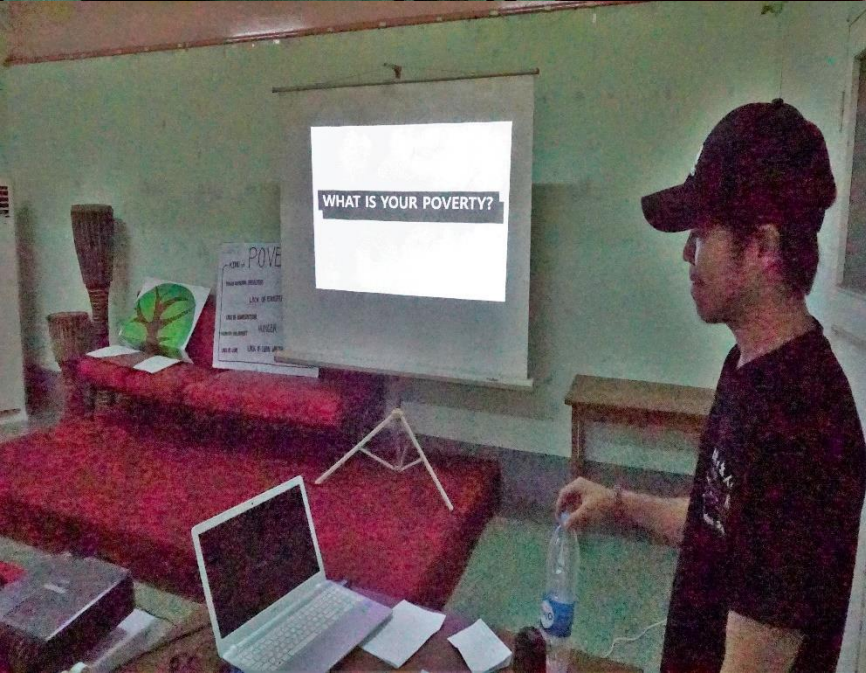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하DJ가 진행하는 첫번째 코너!!!
빈곤퇴치 캠페인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빈곤퇴치 캠페인에 대해
서 사연을 받아왔는데요. 수많은 사연 가운데 뽑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에서 국제자원활동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빈곤퇴치캠페인에 대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근데 사연 상품은 무엇을 주나요 ㅎㅎ?? 헤헤. 맛있는 음식 보내주세요!!!!까불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희 팀은 양곤에 도착한 직후부터 빈곤캠페인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그래서 10월17일 빈곤의 날을 맞아 빈곤 나무, 팜플릿을 제작하고 여러 미얀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월28일에는 양곤 Y 스태프 전원에게 빈곤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공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ON AIR

네, 잘 들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빈곤퇴치 캠페인을 이렇게 했군요. 이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몇가지 사연이 더 들어왔는데요. 읽어 볼게요~



우리 팀의 빈곤퇴치 캠페인 목적은 빈곤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고, 서로의 빈곤을 이야기 하며 작은 위로와 공감을 나누어보자는 것이었어요. 아띠클럽부터 YMCA 스텝들까지 빈곤에는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가정적, 환경적, 사회적(공동체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고, 모두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미얀마 사회는 아직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어요. Inequality, No trust, Poor leadership과 같은 단어를 포스터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하며 삭제해야만 했어요. 이제 막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미얀마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 세대일수록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믿음의 중요성을 느끼며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좀 더 나은 사회와 발전된 나라를 갈망하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고, 가능성을 느꼈어요. 이 청년들이 만들어 갈 그들의 미래를 응원해주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의 빈곤을 고백하는 시간들도 정말 감사하고 소중했어요. 제 친구들에게도 이야기 하지 못했던 저의 빈곤들을 눈 딱 감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그들도 모두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함께 나누어주었어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우리였지만, 그 눈빛과 표정에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제 마음 속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그들을 더 이해하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빈곤은 참 개인적이면서도 정말 상대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원인을 본질적으로 찾으려다 보면, 사회와 환경이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우리는 너무 미약한 존재예요. 답답하고 화가 나기까지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게끔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 뿐이에요. 충분하진 않겠지만 분명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주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미얀마에 대해 배우고, 그들의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다음에는 빈곤뿐만 아니라 풍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리지 못했던 풍요를 이 미얀마에서 느꼈던 순간이 있거든요.)



ON AIR

처음 빈곤퇴치 캠페인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부정적이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거해봤자, 달라지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빈곤퇴치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단 한사람이라도 의식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캠페인의 목적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요. 라온아띠가 끝나고도 빈곤퇴치 캠페인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고민할거예요.



양곤YMCA에 온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빈곤퇴치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미얀마에서 '빈곤'이라고 하면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라는 뜻을 연상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빈곤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빈곤의 다양성을 내용으로 포스터와 대자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빈곤의 나무라는 대자보를 만들어서, 여러 미얀마 친구들의 빈곤을 나뭇잎 모양의 메모지에 담아 여러사람들의 빈곤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많은 미얀마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빈곤을 공유해주었고, 미얀마에 많은 빈곤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주된 내용은 경제적인 측면의 빈곤이 많았지만, 그것 외에도 가족과 관련한 여러가지 자신들의 빈곤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고, 조금 더 다양한 부분의 빈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미얀마는 아직 그러한 부분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러부가 존재하였고, 좀더 자유롭게 빈곤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변해가고 있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고작 두 달 가량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미얀마 사회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 서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빈곤, 그들의 이야기들을 마음에 미약하게나마 담을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10월은 end poverty 준비를 했어요. 포스터 만들기, 판넬 제작에 이어 포스터에 미얀마어로 번역까지 해보았어요. 처음 포스터를 준비하면서 y직원분들에게 빈곤의 다양성에 대해 알리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빈곤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빈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나누고, 공감하게 되어서 더더욱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해 더욱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아띠클럽 친구들 또한 자신의 빈곤에 대해 이야기 해주어 참 고마웠어요. 비록 공원에서 빈곤캠페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사람들에게 빈곤캠페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y직원분들과 아띠클럽 친구들 덕에 빈곤캠페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 같아요.



ON AIR

네~사연 잘 읽었습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이런 일이 벌어
지고 있었다니 참 놀랍군요. 이제 다음 코너는 아띠클럽인데
요. 산드라와 갈등이 극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노래하
나 듣고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바이브가 부릅니다. 미친거니



광고중

강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럼 YMCA
킥복싱장으로 come! Come!

ON AIR

ON AIR

아띠클럽

네! 이제 그부 '아띠클럽' 입니다. '아띠클럽'에 대해서도 많은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아, 그전에 저 멀리 있는 베트남에서 익명사연이 도착했네요. 읽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온아띠 베트남팀 16기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곳에 온 지 50여일 밖에 지내지 않았지만 요즘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해요. 그 친구는 웃음이 정말 많아요.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저희를 맞아줘요. 그 웃음을 보고 있자면 저도 모르게 웃음지어지곤 해요. 상상하는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띄네요. 그리고 저에게 많은 관심을 주고 또 제 실수에 있어서도 미소로 넘어가줘요. 하지만 그런 관심이 '저' 라서가 아니라 '한국사람' 이여서 주는 것 같아 생각이 많아지곤 해요. 그리고 볼 때 마다 새로워요. 어떨 때는 한없이 챙겨주고 싶다가도, 어떨 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고, 모든 걸 가진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아픔도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꼭 이 친구의 이면을 들여다 보고자 시간을 갖기도 해요. 때로는 마주하기 싫을 정도로 불같이 뜨겁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이내 품속으로 뛰어들고 싶어져요. 아직 이 친구에 대해 모르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서 앞으로 더 만나보고 다양한 면들을 보고 싶네요. 하하 ㅎㅎ하하하하하하하하 ㅎㅎ얼른 다 같이 모여 각자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ON AIR

네 사연 잘 봤습니다.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의 사연이었는데요. 읽는동안 제가 더 설렸
네요 하하핳ㅎ하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 그 상대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베트남까지 가서 끼 부리고 다니시나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대단하시네요. 클
라스가 글로벌 하시네요? 이처럼 저희 방송은 익명을 철저히 보장해드립니다. 마구마구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사랑에 빠진 이 분께 곡 띄어 드리고 바로 아띠클럽 사연으
로 넘어갈게요! **먼데이키즈가** 부릅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ON AIR

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에서 국제자원활동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아띠클럽에 대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지난 10월은 다사다난한 아띠클럽이었어요. 산드라와의 갈등이 주였죠. 그래서 사실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한 게 없어요. 기억에 남는건 뚜 뚜 생일파티밖에 없네요. 앞으로는 좀 더 수월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되면 좋겠네요.

?

네 잘 읽었습니다. 사연이 몇 개 더 들어왔는데요. 더 읽어볼게요.



아띠클럽

“토요일마다 한국어를 배우는 미얀마 현지 친구들과 시간을 나누는 아띠클럽 활동은 신선한 경험인 것 같아요. 얼마전 뚜뚜라는 친구의 생일이었습니다. 뚜뚜는 아띠클럽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원년 멤버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는 생일파티를 해주기로 했어요. 미얀마에서는 생일에 생일파티를 잘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어로 할 수 있는 게임도 준비하고, 같이 웃으며 이야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사실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일은 제게는 참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뚜뚜에게 고마웠는데, 이렇게 작게나마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아띠클럽은 정말 재밌는 활동이고, 저희에게 필요한 활동이에요. 그치만 요새 들어 그 활동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힘드네요. 담당자분이 아띠클럽 활동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들과 밖에 나가 공원을 가고, 돌아다니는 부분에 대해 염려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ON AIR

아띠클럽이 존폐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때에 아띠클럽이 없어지는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미얀마에서 아띠클럽을 할 날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아띠클럽이 없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우리를 만나면서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이 좋아요.



10월 16일은 미얀마의 큰 명절이었어요. '데딘쫘'라고 불리는데, 부처님이 내려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래요. 미얀마 사람들 중 80% 이상이 불교신자인 만큼 이 날 파고다에서는 촛불을 환하게 켜놓고, 양곤 곳곳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밤거리에 온갖 축제들이 열려요. 우리 찻데 팀도 이 날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녁 8시 통금 시간을 지키기 위해 15일 토요일에는 아띠 클럽 친구들과 저녁만 먹고, 16일 일요일에는 판퓌 언니를 조금 일찍 만나 축제를 즐기자는 계획을 세워봤어요.

15일 라이브러리에서 아띠클럽이 끝난 후 뚜뚜언니, 보미언니, 하니, 팜머머와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고 산드라 간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오늘과 내일 둘 중 하루만 밖에 나갈 수 있다고,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당황당황) 기대로 잔뜩 부풀어 있던 마음에 먹구름이 휩싸였어요. 어랏. 아띠클럽도 판퓌언니도 포기할 수 없는데! 산드라 간사님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간사님 오피스로 찾아갔죠.

왜 둘 중 하루만 나갈 수 있는 건지 이유를 궁금해하는 저희에게 간사님은 화가 정말 많이 나셨어요. 여기는 그녀의 site이고, 그녀의 order이고 결정인데 왜 항상 이유를 묻냐고 하셨어요. 매일같이 밖에 나가기를 바라는 거냐고 혼을 내셨어요. "만약 내가 아띠클럽을 그만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라고 하시는 간사님 말씀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 앉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뭐라고 미얀마 1기 때부터 소중한게 이어져 온 아띠클럽을 존폐 위기까지 내몰게 하는 거지. 죄책감도 들고 너무 슬펐어요.

아띠클럽은 저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 미얀마 청년들이 있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솜씨도 없고 분위기를 밝게 이끄는 데 소질이 없는 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뚜뚜, 보미, 쉐이 언니는 1기 때부터 함께 해주었고, 모두 직장에 다니면서 바쁜데도 항상 저희를 챙겨주고 걱정해줘요.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한 시간 외출하는 것뿐인데도 아띠클럽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주의를 주시는 간사님께 어떻게 해야 신뢰감을 드릴 수 있는 건지 고민이 많이 들어요. 미얀마라는 환경 속에서 친구를 사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아띠클럽 친구들을 만났어요. 10월1일은 뚜뚜언니의 생일파티가 있었던 날이에요. 다같이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한국 라면과 미얀마 음식을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재미있는 스피드 게임도 했어요. 저는 아띠클럽 친구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친구들을 볼 때면 제가 베트남에서 유학했던 때가 떠올라요.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아띠클럽 친구들 중에는 취미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친구가 있고,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직장을 갖기 위해 공부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저 또한 열심히 미얀마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도 들어요. 항상 한국어에 대해 질문하고, 열의 넘치는 이 순수한 친구들이 혹여나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상처 받지 않을까 항상 마음이 쓰여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모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지만 그래도 지금 이순간 만나고 있는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서로 서로 배우며 좋은 추억도 많이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10월에 아띠클럽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외출에 대한 제약이 많아 힘들었어요. 친구들과 데딘쪼 축제 때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참으로 아쉬워 슬퍼요. 11월에는 10월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추억들을 아띠클럽 친구들과 만들어 가고 싶네요.



ON AIR

네, 아띠클럽에 관한 모든 사연 읽어봤습니다. 모두들 고민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산드라와의 관계가 호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저한테 익명SMS사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열일중인 amelia 단원이예요. 듣자 하니 미얀마팀의 하도현이 또 한번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열심히 걷고 있다는데 그의 질풍노도는 끝났는지 짱! 궁금해요



ON AI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네, 저의 질풍노도는 끝났는데 사랑하는 고국이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안타깝네요. 걱정 해주셔서 고마워요 애밀리아. 갑자기 고국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노래하나 듣고 올게요. 규현이 부릅니다. 광화문에서



ON AIR

규현 목소리 정말 좋네요. 노래를 들으니 저도 광화문을 가고 싶네요. 아 방금 캄보디아에서 SMS사연이 그거 들어왔는데요 읽어볼게요!



dj Ha! 지난 기수 중에서는 미모로 치킨도 싸게 살 수 있었다는 분도 계셨다는데 그 쪽은 어떨까요 미남 미녀들이 모여있지 않던가요 치킨 싸게 살 수 있나요 없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ON AIR

미남은 맞는데 미녀는 아닙니다.(단호) 아직까지는 저희들의 잘생김으로 치킨을 싸게 사본 적은 없네요.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캄보디아에는 출중한 미모를 가진 분이 계시지 않던가요? 갑자기 그 분이 보고싶네요. 노래 듣고 다음사연으로 넘어 갈게요. **존박이 부릅니다. 네 생각**



ON AIR

정말 노래 좋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dj Ha! 아 저희팀은 진짜 거짓말 안하고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정전이 됩니다. 정전이 되면 1시간 이상씩 전기가 all stop 되는데.... 비가 많이 내려야 정전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정전이 되면 저희는 진짜..... 뭘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님들은 어떠세요 정전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겪었다면 그 때는 뭐하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메익



ON AIR

네 메이크씨 안녕하세요. 정전이라.. 한 2~3번 꺾어본 것 같아요. 저희는 한 5분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아이고..3일에 한번씩 정전이 된다면 정말 불편하겠네요.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안보이는 건가요?? 그때가 기회가 되겠네요. 그동안 마음에 안들었던 팀원을 몰래 때리세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 갈게요. 메이크씨를 위해 꼭 띄웁니다. 그레이가 부릅니다. 위험해



ON AIR

ON AIR

미안마어수업/하우스키퍼

ON AIR

네! 하DJ가 맡은 마지막 코너 미얀마어수업/하우스키팅입니다.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에서 국제자원활동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미얀마어수업/하우스키팅에 대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매주월요일마다 하우스키팅을 하고있고, 매주 월, 금요일마다 미얀마어 수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관해 사연이 더 들어왔는데요. 읽어 볼게요~



ON AIR

“저는 양곤Y에서 미얀마어를 배우면서 하우스키팅을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키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정말 낯설었습니다. 일이 힘든 것 보다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원분들의 배려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우스키팅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한 그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얀마어 수업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알려 주시는데, 계속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미루는 루쏘(못된사람)가 여기 있네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간단한 말을 주고 받을 수 있음에 기분이 좋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지만....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듯이 이제 미얀마에서 보기 힘든 ‘한국인’에서 미얀마어를 잘 못하는 옆집 ‘한국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해 보이는 것이 대단해 보였지만, 요즘 들어서는 평범하게 다가가는 것이 더 값진 것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미얀마어/하우스키팅

1. 미얀마어 수업은 정말 좋아요. 실은 준영이형을 좋아하는 한 여선생님이 있거든요(속닥속닥) 그들의 달달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가 더 마음이 좋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미얀마어 공부를 열심히 할거예요.

2.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하우스키팅은 그동안 마주칠 일이 없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침대 시트 가는 법을 마스터해서 좋아요.



ON AIR

양곤 YMCA에는 제 또래의 친구들이 정말 많이 일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리셉션을 지키고, 매일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고,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서빙하고, 설거지를 하는 이 친구들은,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일자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정말 진심으로 이 친구들이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깊이 존중 받고, 더 많이 사랑 받으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기를... 마음 속으로 응원해 봅니다.



ON AIR

미얀마어는 점점 익숙해지는 표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새로운 표현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할 것 같아요. 항상 자주 사용하는 말만 되풀이하여서 실력이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공부도 게을리 하고 있어요. 회화는 회화대로 민민 또나 주변 분들에게 계속 묻고 말하고, 글자 공부도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꾸준히 해야겠어요. 글자 읽기를 반드시 마스터하고 말 거예요! 미얀마어를 가르쳐주는 에띠, 띠띠선생님들은 항상 친절하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들 덕분에 미얀마 수업 때마다 항상 의욕이 충만해집니다.



ON AIR

네 모든 사연 잘 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맡은 코너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제 엄DJ한테 바통을 넘길게요. 끝까지 주파수고정! 해주세웁 ㅎㅎㅎㅎㅎㅎ. 마지막 곡 띄어 드리고 이만 물러갈게요. 모든 분들이 항상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기 바라며 박효신이 부릅니다. Beautiful tomorrow



이재민의
사생활을 찾아라!



양곤에서 온

ISAAC 컨퍼런스 사연입니다.





ISAAC

INTERNATIONAL SUBSTANCE ABUSE
& ADDICTION COALITION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ISAAC International Conference Myanmar - October 2016

“우리가 살고 있는 양곤YMCA에서 중독에 관한 ISAAC 컨퍼런스가 개최되면서, 양곤Y에 일원으로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0월 7일, ISAAC 주최측과 미팅을 하고 10월 8일부터 공항에 나가 회의 참가자들이 무사히 양곤Y로 갈 수 있게 돕는 일을 했어요.

일요일에는 일정이 꼬여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공항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이라도 되면 한없이 전광판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곤욕인 일이었어요. 월요일에는 양곤Y의 요리사인 누누테를 도와 회의참가자들이 먹을 식재료를 다듬었어요. 다듬고, 또 다듬었죠. 새삼 양곤Y의 모든 이들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누누테 아주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부터는 Works shop 진행을 도우면서 수업을 같이 듣고, 식사시간에는 음식 서빙을 도우며 하루를 보냈어요. 수업은 대부분 중독에 관한 이해와 신앙을 다뤘어요. 좀 난해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전통 복장과 장기자랑을 볼 수 있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우리 역시 장기자랑을 해야 했고, ‘지금 이순간’이라는 곡과 cheer up 을 췌어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파티가 끝난 다음날

저희는 ISAAC으로 부터 고생했다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한 쉼다곤 파고다 관광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끝낼 수 있었죠. “

“정신 없이 바쁜 일주일 이었습니다.”



ISAAC

INTERNATIONAL SUBSTANCE ABUSE
& ADDICTION COALITION

양곤의 별이 ✨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중독’과 ‘마약’이라는 주제로 양곤 YMCA에서 컨퍼런스가 열려 참가하게 된 U예요. 전세계 18개국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대부분이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스스럼없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청하고,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수많은 문화권에서 발생한, 참 다르지만 비슷한 중독 문제를 서로 이해하려 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열띤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선했고 참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우선 ‘Addiction’이라는 이슈를 과학적, 종교적, 심리학적, 예술적, 의학적 관점 등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연구를 발전시켜나갔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우리나라는 drug 문제에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제시한 중독의 대상은 마약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술, 담배, 음식부터 인간관계까지 그 범주를 확장시켜 나갔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크고 작은 중독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독의 본질적인 원인 해석부터 증상, 문제점, 경험담, 지역사회와 정부의 대응 방식, 치료 (detoxification, rehabilitation)의 여러 접근 방식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고, 사람들은 티타임과 워크숍 때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눌 수 있었어요. 물론 ISAAC이 기독교를 뿌리에 둔 단체이다 보니 때로는 다소 과한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이것도 그냥 하나의 주제로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새벽 6시 반부터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서로의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은 오히려 참 보기 좋았다니깐요.



ISAAC

INTERNATIONAL SUBSTANCE ABUSE
& ADDICTION COALITION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한 번 들어도 금방 흥얼거릴 수 있는 쉽지만 예쁜 멜로디 때문인지,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 노래를 부르는 worship 시간도 즐거웠어요. 누군가를 위하는 진심을 담아 신께 대신 부탁 드리고, 흔들리는 자신을 신 안에서 단단히 붙잡아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으며,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려는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자주 감사하려고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이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컨퍼런스 동안 ‘종교를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숨은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한 수많은 YMCA 스텝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외국인들을 공항에 픽업하는 일부러 모든 미팅 장소들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나르고, 정리하고, 마지막 날 밤 특별 공연무대까지 꾸몄던 우리 Y 직원들은 매일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어야 했죠. 대학생 Volunteer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던 우리는 그들과 책상을 나르다가도 워크숍에 참가하고, 음식을 먹다가도 서빙과 뒷정리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한 달보다 이 일주일 동안에 훨씬 가까워 질 수 있었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내 이웃 같고, 친한 언니 오빠 같아진 여기 이 분들과 함께, 힘들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값진 날들이었습니다. ^ _ _ _ _ ^”



ISAAC

INTERNATIONAL SUBSTANCE ABUSE
& ADDICTION COALITION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컨퍼런스를 참여 했던 일주일의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는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해외 관계자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서빙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Y직원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어로 진행되는 컨퍼런스 기간 동안 영어 공부도 많이 되었고, 여러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또, 편하게 차려진 밥상 뒤에는, 그 음식을 요리하고 정리하는 직원분들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릇들을 치우고, 밥상을 차리고, 음식들을 서빙 하면서 Y 직원 분들과 더욱 더 애뜻해 진 것 같아요. 앞으로 컨퍼런스 같은 큰 행사가 또 있다면, 기꺼이 Y직원 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컨퍼런스 기간 중, 아쉬웠던 점을 뽑자면, 마약과 관련된 모든 강의 내용들이 모두 성경과 연관되어 해석되어 진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에, 아침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기도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강의 내용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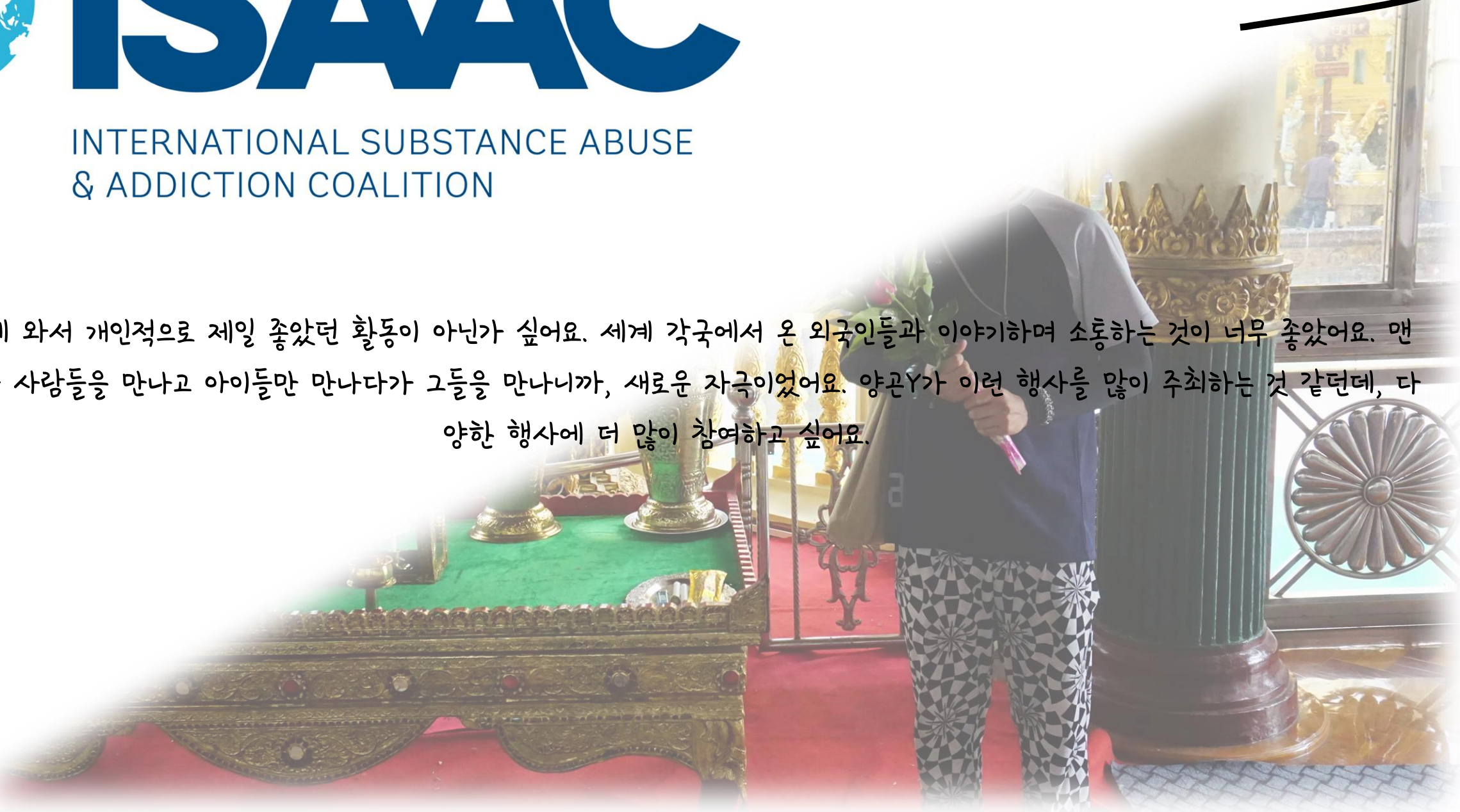


ISAAC

INTERNATIONAL SUBSTANCE ABUSE
& ADDICTION COALITION

양곤의 별이 ✨
빛나는 밤에

“미얀마에 와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과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맨날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고 아이들만 만나다가 그들을 만나니까, 새로운 자극이었어요. 양곤Y가 이런 행사를 많이 주최하는 것 같던데, 다양한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



정신없이 보내셨던 사연의 주인공들이
동분동박하여 보내 온 사진입니다.

양곤의 별이 ✨
빛나는 밤에



2016. 10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2016. 10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2016. 10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2016. 10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ISAAC 컨퍼런스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늘씬이 사연입니다.



“저는 양곤에서 널씨리 활동을 두달째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개의 활동지를 방문하죠. 화요일에는 마오끌라바, 수요일에는 흘랑따야, 목요일에는 쉼베따, 금요일에는 양곤YMCA를 방문합니다. 이번주차에는 신체, 가족, 친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신체는 율동과 함께 신체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뤘어요. 가족이라는 주제는 색칠하기 위주로, 색칠한 가족들을 모아 신문지 액자에 붙여 하나의 가족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간단한 협동심 게임을 위주로, 둥글게 둥글게 동요를 부르면서 손을 잡고 돌다가, 3명씩 모이기와 같은 여러가지 게임을 했습니다. 쉼베따는 학교라는 협소한 공간을 감안해서 친구 얼굴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서로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번달에 쉼베따가 시험과 방학기간이 겹쳐서 세번 정도 널씨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책으로 마을에서 페이스페인팅을 이주 정도 했습니다. 마오끌라바 친구들은 항상 활기찬 친구들이라 모든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세가 과할 때가 있어 활동 진행이 불가능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진행이 잘 안되면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널서리 활동을 생각하면 웃음부터 나오네요.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웃고 하는 시간이 참 행복해요. 저에게는 힐링과 같은 시간이죠. 아이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점이 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 한명 한명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름 외우기’인 것 같아요. 반갑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다가가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것 같아요. 함께 웃고, 눈을 마주치고, 포옹하는 순간 순간, 아이들 자신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좋겠어요. 저의 희망입니다. 하하.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 해야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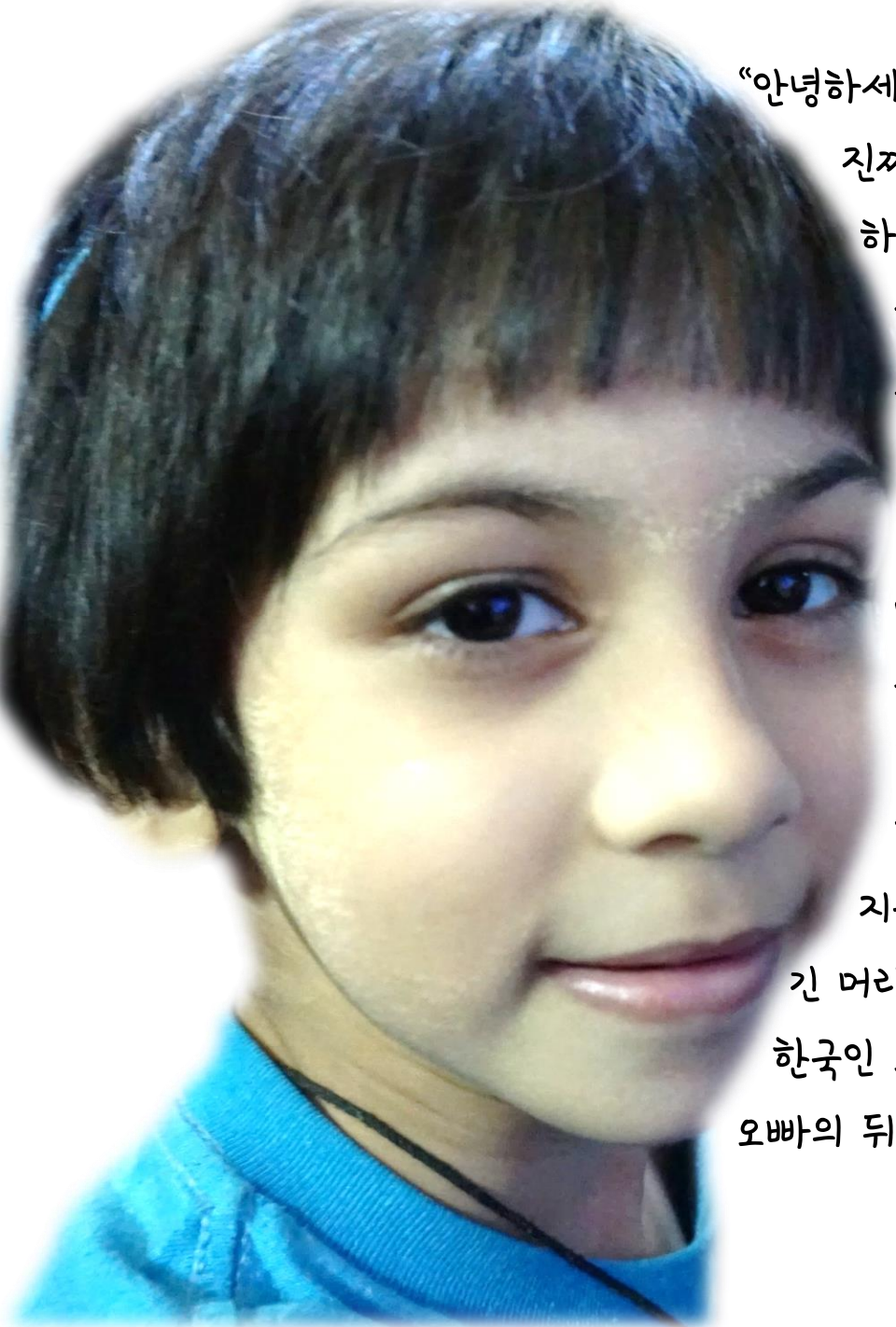
9월 때는 널서리 활동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 미얀마에서 5개월의 활동이 단순히 아이들이 귀여웠어 로 끝나면 어찌지? 아이들 밖에 남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하다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뭐, 그러면 어때요. 라온아띠의 5개월이라는 시간이 설령 아이들로 끝날지라도 이제는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는 순간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2개월만 되었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남은 3개월 동안은 어찌죠? 더 좋아질것 같아요.”

“ 우리 활동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널서리,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것, 그들과 웃고 노는 것, 선생님들을 뵈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만나는 날이 얼마 없네요.

“얼른 추억하나 더 쌓아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양곤 YMCA에 살고 있는 U입니다. 양곤 Y 널서리에는 한 여자 아이가 있어요.

진짜 말괄량이예요. 장난감을 절대로 친구들이랑 함께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이 친구 때문에 하루에 한 명씩은 꼭 우는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놀러 오는 한국인 언니, 오빠들도 독차지하고 싶어해요. 절대 한 명으로는 만족하지 않죠. 세야마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아이의 이름을 외치세요. 혼이 나면 풀이 죽은 것 같다가도 금방 되살아나요.

이런 걸로 기가 죽을 아이가 아니죠.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해요.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퍼즐도 금방금방 똑딱똑딱 맞춰요.

색칠도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다양한 색을 써 가면서 꼼꼼하고 깔끔하게 색칠하는 모습을 보면 초등학생이라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얼마 전 수술로 다리를 절단하셨대요.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이 아이는 한국인 언니의 품 안에 꼭 안겨 눕는 걸 좋아해요. 언니의

긴 머리카락을 좋아해서 많이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얼굴을 파묻어보기도 해요.

한국인 오빠가 비행기 태워주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까르르 소리를 지르고 한 번 더 태워달라고 오빠의 뒤통무니를 졸졸 쫓아다녀요. 이 아이는 자신이 사랑 받는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해 해요.”



“그냥 이런 아이가 있다고요. 사내 아이보다 더 거칠어서 언제나 썬야마의 눈총을 받는 이 아이가 꾸짖음보다는 따뜻한 칭찬의 말, 다그침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아서, 사랑을 나눠 주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장난감도 사이 좋게 나누어 갖고, 언니, 오빠의 품도 내어줄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길어보아야 4시간을 만날 뿐인데, 그 때 제가 제 모든 사랑을 쏟아주면 이 아이는 혹시나 부족하다고 느꼈던 관심과 사랑을 가득 충전 받고 갈 수 있을까요? 3개월 후면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어찌죠?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 수록 마음이 아파요. 자신의 점심 도시락 반찬이 삶은 계란 하나 뿐인 걸 보고, 소고기 반찬을 가진 친구의 도시락을 가리키며 먹어 보고 싶다고 제게 간절한 표정을 지었던 마오끌라바 아이가 생각이 나요. 양곤 YMCA 유치원 tuition fee는 25000짖, 흘랑따야는 1500짖이래요. 16배나 차이가 나는 이 두 유치원 사이에 교육 환경도 16배가 차이 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서요. 아이들과 잘 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큰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제가,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져요.”

“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입니다.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2016. 10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2016. 10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2016. 10

양곤의 별이 ✨
빛나는 밤에



2016. 10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양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아이들과 함께한 10월이었습니다.”

개인 에세이



“ 먼 훗날, 오늘을 추억하자. ”

비지 선생 명언 중에서 발췌

9월에, 나에게 미얀마는 낯설음이었다.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의미도 찾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불만만 쌓여가고 있었다. 계속해서 늘어가는 불평. 그 불평조차도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자괴감에 입을 닫아 버렸다. 아무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던 책임감으로 활동지를 수동적으로 오갈 뿐이었다.

나에 대한 자괴감, 양곤YMCA에 대한 의문점들, 그리고 NGO단체들에 대한 의문점들 역시, 칭답은 사실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정답 같은 건 없었다. 동화 간사님이 국내훈련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건, 분명 미얀마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5개월을 보내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는 분명 찾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고작 다섯 달 후면 떠나갈 나에게, 똥에지(친구)라며,



미얀마 양곤에서

정신 없었던

10월.



미따주(가족)라고 불러주고, 씨익 웃으며 반겨주는 내 친구들. 그거면 충분했다. 양곤YMCA에 사는 STAFF 중에 '비지'라는 친구가 있다. 그는 양곤Y에 없어서는 안되는 유능한 엔지니어로 양곤Y에 자동차와 관련된 수리는 모두 도맡아서 하고 있다. 덕분에 Dr.따난 총장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있다. 그렇지만 그의 휴일은 한달에 한번도 힘들다. 그가 없으면 차를 정비할 사람이 없기 때문. 그런데도, 그 친구는 불평 한마디없이, 자신이 하는 일 자체가 축복이라고 얘기한다. 비지처럼 낙천적인 친구를 미얀마에서 얻을 수 있어 행복하다.

‘비지’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다. 비지와 함께 YMCA 8층 옥상에서 달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월인 달을 본 비지가 말하길,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온 ‘준’이라는 친구와 미얀마에 사는 ‘비지’라는 친구가 함께 했었다고. 먼 훗날, 오늘을 추억하자는 말. 잊을 수 없을 것만 같다. 비지는 이제 20살인 친구이지만, 나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다. 그는 미얀마에 있어서 나의 인생 선생님이야.

(항상 어른스럽지는 않다. 보통은 철없을 때가 더 많다.)



10월은 나에게 회복기였다. 아이들과 만나는 것도 즐겁고, 딱히 문제가 될만한 일들은 없었다. 산드라 간사님과 팀간에 문제는 좀 있었지만, 그 밖에 모든 상황에서는 즐거운 일들이 더 많았다. 웃을 수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생겼다. 그것만으로 족하다. 허무맹랑한 것을 나는 쫓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이제 한결 많이 가볍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11월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10월의 유진”



멈추다.

그 사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그 사람의 다른 면들을 자꾸만 보게 된다. 알게 된다. 내가 너무 느린 걸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직 지난 일들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또 다른 일들이 터진다. 너무 가혹하게. 하루하루 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난 어떤 생각을 했고, 무슨 감정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리하고 고민하는 게... 지친다. 힘들다.

그래서 생각을 멈췄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보려고, 그냥 멍하니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잡생각과 걱정, 고민들로 뿌영게 가려져 있던 순간순간들이 오히려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더 예쁘고, 멋지고, 사랑스럽게 보인다. 내 마음의 소리들이 더 솔직하게 들린다. 훨씬 평화롭고 고요하고 여유로운 것 같은데, 더 치열하고 역동적인 느낌이다.

부디 이 진한 울림과 깊은 진동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내 생각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마음 속 한 칸에 계속 자리잡고 있는 고민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힘을 주었으면.

행복을 강요 받는 일

그녀는 내게 자꾸만 행복하냐고 묻는다. 행복해 보라고, 노력하라고 한다. 난 참 행복한데, 정말로, 충분히!

흠... 내가 안 그래 보이냐? 거 참 얼마나 더 표현해야 하는지.

전 24시간 싱글벙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요 말아 주실래욧!

위로

항상 동한 표정만 지었는데, 어느 날 수줍게 다가와 내 무릎에 앉던 빵디에게서. 비 온 후 물기를 가득 머금어 흙 내음이 유난히 진하게 풍기던 기차길 풍경에서. 쉼다곤 파고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간절히 기도하는 아주머니에게서. 짐통 같은 버스 맨 뒷자리 땀 흘리며 자고 있는 내게 부채질을 해준 오빠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난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 힘든 순간을 잘 이겨냈으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진심을 타고 전해졌으면 좋겠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 (노란 느낌표)

땀이 날 정도로 청소를 한다. 벌레 시체를 보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쓸고 또 닦는다. 내일이면 다시 더러워질 테지만 그래도 뿌듯하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달디 단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 너무 맛있어서 한 잔 더 타먹는다. 오늘 밤 잠은 다 잤구나, 빈곤 캠페인 준비는 그 때 해야지 생각한다.

어슬렁어슬렁 YMCA 건물 여기저기를 탐방한다. 곳곳에서 마주치는 스텝들과 수다를 떠난다. 대화 주제는 항상 똑같지만 항상 반갑다. 오빠랑 배드민턴도 쳐본다. 깃털 빠진 셔틀콕과 등성등성 구멍 뚫린 체는 우리 배드민턴 실력을 향상시켜주리라 믿어본다. 빨래를 하고 비누 냄새를 맡는다. 상쾌해서 한 번 더 맡는다. 다음 주 널서리 고민을 하며 언니, 오빠와 고스톱을 친다. (이기면) 참 재미있다.

책의 한 구절을 소리 내어 읽어본다, 스무 번 정도. 침대에 누워 바깥 소리에 집중한다. 또 개들이 한바탕 싸우고 있구나. 밤하늘에 흰히 뜬 달을 보며 내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한다. 다들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오늘도 좋은 꿈 꿴으면 좋겠다.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주말인데도 난 이렇게나 바쁘다. 노란 느낌표가 이젠 답답하지 않다.



“10월의 유진”



또, 위로

사실은 많이 힘들었다. 혼자서는 버거웠다. 속상하고 슬펐다. 다 털어놓고 싶었다. 위로 받고 싶었다. 어리광 부리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이 말들을 하면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 알았다.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근데 숨길 거면 티 내지 말고 잘 숨겨야지. 몸도 아프고, 엄한 데 신경질도 났다. 바보 같다.

이런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잘 다스리는 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한가 보다. 감정의 불순물들을 거르고 또렷하게 내 상태를 인지하는 것. 감정의 본질과 원인을 똑바로 파악하는 것. 그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 타인에게 상처주지 않도록 잘 표출하고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것.

많이 어렵다.

서툰 기도

오늘 하루도 제게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료와,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들, 또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것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무엇에 슬퍼하고 왜 분노하는 걸까요. 이 슬픔과 화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음... 정말 잘 헤쳐나가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작은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는 건 욕심인 걸까요? 그래도 기도해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더라도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과정이 그에게 값지고 행복한 순간들로 기억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드립니다.

RaonAtti

10월 에세이

송정민



힘든 한 달이었다

10월의 나는 '관계' 라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녀굴에 얽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까이 있는 팀원들이 힘들어 할 때 내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침체되어 있는 팀 분위기 속에서 이리 저리 눈치 보는 나 자신, 상대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는 나, 노력해도 자꾸만 어그러지는 간사님과의 관계...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곳도 없는데 자꾸만 밑으로 내려갔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의 관계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 걸까. 더 노력하고 용기 내어 간신히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원점이라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상대의 말이 일방적인 강요와 지시로 느껴짐에도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걸까. 부당함을 느끼에도 그것이 양곤 YMCA의 룰이라고 주장한다면 수긍해야 하는 걸까.

유난히 동그랗고 밝은 달이 떠올랐던 데딘췌 축제 날, 나는 우울했다. 양곤 Y에 갇힌 채, 베란다에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연이어 터지는 불꽃들과,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그날따라 달은 야속하게도 왜 이렇게 더 예쁜 건지. 양곤 Y가 미얀마의 전부가 아닌데..이 곳이 전부가 아닌데...모든 것이 서러웠다. 미얀마에 와서 미얀마를 보지 못하는 것, 맞지 않는 성격의 팀원과 다툰 것, 타지까지 와서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까지. 양곤까지 와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다. 내가 집중하고 싶은 일들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내 자신도 싫다.

10월 나의 일기장은 주로 화를 내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내 감정적인 슬픔에서 허덕이다 보니 또 한 달이 흘렀다. 모든 나의 감정들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묻혔다.

11월은 행복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냥 그렇다

KBbank&YMCA Raonatti 16th

2016.11.17

by 하도현



익숙하다. 이젠 모든 것이 익숙하다. 기상-활동-빨래-운동-잠. 똑같은 패턴이다. 그래서 어디론가 떠날 때 떠나는 순간만큼은 행복했고 행복하다. 난 어딘가를 떠나야 하는 사람인가보다. 역마살이 끼인게 분명하다. 군대에 서부터 그랬다. 한달에 한번 꼴로 휴가를 나와서 여행을 다녔으니 말이다. 어딘가에 익숙해진다는 것. 나쁘지만은 않다. 허나, 익숙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갈망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모르겠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것이다 계속.



11월에 다시 만나요!